

# 耽羅時代의 地理的 環境과 住民들의 生活基盤

정 광 중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목 차

- I. 머리말
- II. 탐라시대 집단 거주지의 형성과 지리적 조건
  - 1. 거주지로서의 지리적 조건
  - 2. 초기 거주지의 형태와 지상가옥으로의 발전
    - 1) 동굴 주거지의 특성과 분포
    - 2) 지상가옥으로의 발전
  - 3. 생활공간으로서의 해안지역의 특성
- III. 인구구성과 취락의 형성·확산과정
  - 1. 인구수의 추정
  - 2. 취락의 분포와 확산과정
  - 3. 취락의 형태와 성격
- IV. 탐라 주민의 경제활동의 기반과 배경
  - 1. 농업 활동의 기반과 배경
  - 2. 목축업 활동의 기반과 배경
  - 3. 수산업 활동의 기반과 배경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 연구는 耽羅時代라고 하는 과거시점의 탐라(제주)의 지리적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기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환경이

란 일정한 지역의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탕이 되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시적·비가시적인 요소의 결합체, 즉 인문(문화)환경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인문환경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지리학적 측면에서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인문환경의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그것들이 인간생활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특정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자연환경의 구성요소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중요한 논점으로 삼는다.

이 글에서는 '탐라'라고 하는 과거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탐라국 시대(A.D. 1~1105년)의 인문지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취락의 형성과 확산과정, 주민들의 주된 경제활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歷史地理學的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며, 그러한 분석작업은 歷史學과 考古學 등 인접학문 분야의 연구성과에 크게 의존하여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 II. 耽羅時代 集團 居住地의 形成과 地理的 條件

### 1. 거주지로서의 지리적 조건

일반적으로 거주지로서의 조건은 ① 安定性 및 安全性, ② 快適性, ③ 便利性, ④ 經濟性을 지적할 수 있다<sup>1)</sup>. 먼저, 안정성 및 안전성이란 각종 자연재해나 공해 혹은 날짐승으로부터의 몸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거주지로서의 안정성과 안전성은 과거로 소급해 올라갈수록 자연적인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 이후부터 동굴이나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을 거주지로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날짐승으로부터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하천 주변 지역에서도 自然堤防 상에 취락이 입지하는 것은 하천 범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여의치 못할 경우 인공제방을 쌓는 이유도 인위적으로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경 때문이다.

1) 김주환·권동희·김창환, 《환경과 생활—환경지리학적 접근—》(신라출판사, 1993), 33쪽.

쾌적성의 측면에서는 居住地의 특성이 採光, 通風 및 溫度를 기본으로 하는 기후조건, 乾濕與否를 결정하는 배수조건, 그리고 거주지 주변의 景觀性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 점은 경제력의 향상과 生活樣式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주지로 선정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상황이 된다.

가령, 지상가옥에서는 창문을 크게 하거나 출입구를 여러 군데로 설치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이며, 또한 先史時代의 竪穴式 住居에서는 반드시 생활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여 바닥에 돌을 깔거나 화덕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도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洞窟 住居地인 경우에는 동굴의 깊숙한 곳보다도 출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선호하는 배경도 채광·통풍·추위나 건습관계로 인하여, 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편리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정도와 맞물려 작용하며, 共同體의인 社會關係가 강해질수록 더욱 유리한 상황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나, 보편적으로 활동의 장으로 연결되는 交通路나 交通手段의 차이 혹은 地價 등에 의해 거주지의 選好傾向은 매우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편리성과 경제성에서는 과거로 소급해 올라갈수록 道路, 河川, 浦口 등에 의존하여 높게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것은 인류사회의 경제활동이 주로 농목업이나 어업을 위주로 한 생활양식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취락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의 도로는 생활환경을 크게 지배하는 기능을 띠게 되며, 이를 배경으로 노동력 교환과 協業體制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 2. 초기 거주지의 형태와 지상가옥으로의 발전

### 1) 동굴 주거지의 특성과 분포

이미 여러 고고학적 발굴 결과로 입증되었듯이, 탐라에서도 최초 주거지의 형태는 주로 동굴 주거지에서 시작되었다. 이점은 탐라뿐만 아니라, 한반도나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굴은 겨울철에는 눈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며, 그 외의 계절에는 바람 및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2)</sup>. 동시에, 동굴은 여러 가지 생활도구를 보관하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생산물을 저장

2) 이기백,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일조각, 1996), 97쪽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동굴 주거지가 생활공간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후조건<sup>3)</sup>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동굴 내의 기온은 외부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로 인해, 동기나 하기에 관계없이 그 차가 매우 적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편적으로 여름철 동굴 내부의 기온은 16~18°C, 수온은 12~14°C이며, 겨울철에는 각각 14~16°C와 9~12°C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후조건은 곧바로 인간의 동굴 내 생활에서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겨울철의 혹한과 여름철의 혹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으로써 經濟的 活動과 社會的 活動을 원만하게 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여름철 동굴 내부의 氣溫差는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는 동굴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海拔高度에 따른 동굴의 온도차는 상황에 따라 거주지를 쉽게 옮겨다닐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다시 말해, 동굴이라 해도 그 길이나 동굴 내부의 형성상태에 따라서는 계절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 내에서도 동굴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경우는 거주지를 자주 이동함으로써 쾌적한 生活空間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동굴 외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동굴 내부의 공기흐름은 동굴 안에서 동굴바깥쪽(입구)으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동굴 내의 공기흐름은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7~9월의 혹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탈진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넷째로, 동굴 내부에 地下水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온은 지하수의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하수는 평상시 飲用水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동굴 내부의 기온조절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생활공간으로서의 우선적인 선택조건이 된다.

이상과 같이, 동굴은 지상 주거지가 정착하기 이전까지는 인간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취할 수 있는 양호한 생활공간으로서의 환경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모든 동굴이 똑같이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생활공간으로서 동굴이 활용되려면 동굴까지의 접근이 우선적으로 용이해야 한다. 接近度는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크게 제약을 받지만, 경제활동의 장과 쉽게 연결되고 동시에 시간적인 제약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나아가, 동굴 내부는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게 나타나

3) 홍시환, 《한국의 석회동굴》(한국동굴학회, 1983), 61~63쪽.

기 때문에, 동굴의 위치나 계절에 따라 한시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동굴의 거주지로서의 편리성과 제약성을 배경에 두고,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확인된 동굴입구 주거지(Tunnel Dwelling Site) 및 바위그늘 주거지(Rock-shelter), 그리고 제주도내 천연동굴의 분포와 특성을 통해 탐라시대 초기의 거주지 환경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최근 제주도 내에서 발굴·확인된 동굴입구 주거지는 11개소, 바위그늘 주거지는 33개소에 이른다<sup>4)</sup>. 이들의 공통점은 형성과정 상에서 볼 때, 주로 해발고도 100m 이하 지역에 분포하는 熔岩洞窟이거나 해안가 절벽 기저부에서의 2차적인 침식, 즉 節理面을 따라 풍화를 받고 부분적으로 붕괴하거나 파식에 의해 형성된 海蝕洞窟이 대부분이다. 그 분포상의 특징은 제주도 내에서도 북촌~김녕 일대의 동부지역의 일부, 협재를 중심으로 한 서북부지역의 일부, 그리고 서귀포~안덕을 잇는 서남부 지역에 집중적인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동굴입구나 바위그늘 주거지는 제각기 발굴 유물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빌레못 동굴(구석기 시대)에서부터 한드르 동굴입구 주거지(탐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이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 활용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동굴입구나 바위그늘 주거지는 지상주거로 옮겨온 이후에도 계절에 따라 불리한 기후조건과 경제활동 상의 악조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임시 주거지로 활용되었거나, 또는 일정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한시적인 주거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고고학적 발굴·확인과는 관계없는 天然洞窟들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내 천연동굴의 수는 98개에 이른다<sup>6)</sup>. 이들 용암동굴 및 해식동굴도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주거지든, 아니면 그 외의 인위적인 활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과 조사는 주로 해발 200m를 전후한 용암동굴이나 바위그늘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동굴들에 대한 발굴조사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제주도 내의 동굴 주거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록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탐라에서도 동굴이나 바위그늘 주거지가 주로 자연에 의존

4) 제주도, 《제주도 천연동굴내 문화유적—기초 조사 보고서—》(제주도, 2001), 23~23쪽.

5) 제주도, 《위의 책》, 25~27쪽.

6) 손인석, <제주 화산도의 천연동굴 분포와 보전>(《동굴연구》 창간호, 제주도동굴연구소, 2001), 1~16쪽.

하던 선사시대의 보편적인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며, 역사시대로 접어들면 서부터는 대부분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주거지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 2) 지상가옥으로의 발전

앞서 논의한 동굴입구 및 바위그늘 주거지가 지상의 주거형태로 발전하게 됨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고려할 때, 지극히 자연스런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거지의 발전형태는 단순한 자연물의 활용에서 인공물의 창조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地上家屋으로의 발전은 본격적인 정착생활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 그리고 인구증가, 각종 생활도구의 개발 및 건축기술의 발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耽羅國의 체제가 5C 후반부터 10C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한다면<sup>7)</sup>, 탐라시대의 지상가옥은 국가체제의 정비단계로 접어들기 이전부터 이미 보편화되었음은 틀림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唐書》 권220 流鬼條의 “여름에는 가족으로 두른 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동굴 안에서 살았다(夏居革屋 冬窟室)”라는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미 탐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여름철에는 지상에서 가족 집을 지어 생활공간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그런데, 탐라의 지상가옥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떠했을까.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三陽洞 마을유적에서 일단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삼양동 마을유적에서는 동서 1.2~1.5km, 남북 0.5~0.6km에 걸친 10만㎡ 정도의 범위 안에서 방형 및 원형 수혈주거지와 高床家屋(窟立柱住居址) 등 236기가 발굴·확인되었다<sup>9)</sup>. 여기서의 고상가옥은 땅속에 기둥을 방형으로 파묻은 2×2칸 구조나 또는 1×1칸 구조의 극히 간단한 형태의 주거지로서<sup>10)</sup>,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개의 칸구조(배치)나 다양한 거주공간의 分化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바로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에서 탐라의 본격적인 지상가옥으로 발전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주거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강영환 교수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변화하면서 인간은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지역을 점유하며 집단으로 정착하기에

7)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濟州島史研究》3, 濟州島史研究會, 1994), 9~40쪽.

8) 金仁顯,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全東北亞에 걸친 民族學的 比較研究—(上)》(宇鑛出版社, 1998), 16~17쪽.

9) 국립제주박물관, 《濟州의 歷史와 文化》(국립제주박물관, 2001), 60~61쪽.

10)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삼양동유적〉(제주대학교박물관, 1999), 15쪽.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주거지는 내부공간이 나누어지고 공간적인 규모가 커지며 목조 가구기술도 발전했다고 지적한다<sup>11)</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탐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비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탐라시대 전기(A.D. 1~500년)에 이미 정착생활을 배경으로 지상가옥이 출현함과 동시에 내부공간의 분화도 많이 진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은 탐라에서도 삼양동 마을을 필두로 하여 많은 촌락이 형성되었음이 발굴에 의해 입증되었고, 게다가 상대적으로 동굴입구나 바위그늘 집자리에서 출토되는 자연·인공유물들이 양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sup>12)</sup>.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탐라에서의 지상가옥은 천연동굴(용암동굴 및 해식동굴)을 활용한 주거형태에서, 내부공간이 미분화된 수혈식 및 고상식 주거지를 사용하다가 완전한 지상가옥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상가옥으로 발전한 후에도 농업경제의 발전, 사유재산과 신분계급의 발달, 개인적 생활공간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지상가옥은 間構造에서 보면 잠자리와 부엌 또는 취사공간이 완전히 분화되지 않은 단칸구조에서 점차 2間, 3間構造로 발전하였고, 동시에 그에 따른 부속시설도 추가되는 과정을 걸치며 더욱 공간적·구조적 확대분화를 동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스기모토(杉本)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층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합된 것으로서, 결국 시대적인 요소들이 서로 결부되며 집적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sup>13)</sup>.

지리학적 측면에서 한국의 민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장보웅 교수는 1970년대 중반시점에서 제주도의 민가가 평면구조에서는 2칸형·3칸형·4칸형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평면구성의 기본요소로서는 구들(방)·상방·고팡·정지의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형태상으로 볼 때, 제주도의 민가는 대부분이 겹집구조를 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조사시점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나, 그의 연구에서 중요한 논점은 제주도의 민가계통이 南方文化的 要素(정지의 솔걸이 상태, 상방, 변소와 축사의 미분리 상태)와 大陸文化的 要素(부엌, 온돌)가 혼합되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4)</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탐라시대의 가옥도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특정시기에 이르러 주변 여러 지역으로부터 건축기술이나 재

11) 강영환, 《집의 사회사》(웅진출판사, 1992), 54~56쪽.

12) 제주도, 《위의 책》, 22쪽

13) 杉本尙次, 《民家の地理》(木内信藏編, 《文化地理學》(東京: 朝倉書店), 1970), 125~153쪽.

료의 활용방법, 내부공간의 구획화, 부속건물의 배치형태 등에 대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기온과 바람으로 대표되는 자연환경적 요인과 지역내의 건축재료의 활용 또는 세대별 생활공간의 분리 등 한반도와는 다른 부분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독특한 탐라의 가옥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3. 생활공간으로서의 해안지역의 특성

탐라의 海岸地域은 과거로부터 주민들이 거주지의 선정에 따른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또는 경제활동의 영위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 왔다. 그런데, 탐라시대라는 시대적인 배경과 당시의 환경적 조건을 검토하는 상황하에서는 특히 해안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탐라시대를 중심으로 그 전후시대에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해발 200m 이하 지역<sup>15)</sup>을 해안지역의 범위로 설정한 후 주민들의 생활상과 관련되는 특성을 논의한다.

1997년 제주도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역의 면적은 총 993.3㎢(54.3%), 中山間地域은 589㎢(32.2%), 山間地域은 246㎢(13.5%)로서 세 지역 중 해안지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해안지역 중에서는 100m 이하인 해안변 저지대가 632.8㎢(전체면적 중 34.6%), 100~200m 지역이 360.5㎢(동, 19.7%)인 것으로 나타난다<sup>16)</sup>.

이러한 해안지역의 지형적 조건은 선사시대로부터 탐라주민들이 주거지를 비롯한 생활공간과 경제활동의 장을 확보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해안지역의 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해안지역은 경사가 낮은 평탄한 지형이 넓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하천수나 용천수의 확보가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인간생활에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가옥의 건축과 음용수의 확보가 중산간지역이나 산간지역에 비해 유리하다는 배경에서

14) 張保旌, 《韓國의 民家研究》(寶晉齋, 1981), 136~180쪽.

15) 해발 200m 이하의 지표는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지역구분에서도 많이 적용하는 기준이다. 최근에 이 지표를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제주도,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국토개발연구원 조사보고서—(제주도, 1997)가 있다. 그리고 탐라(국) 시대를 중심으로 그 전후 시대인 철기시대와 고려시대의 유물들도 대부분은 이 지역 내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국립제주박물관, 《위의 책》, 256~257쪽).

16) 제주도, 《앞의 책》, 16쪽.



해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聚落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로, 이상과 같이 해안지역은 가옥이 집단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취락은 가족중심의 공동체나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집단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정신적·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집단적 공동생활은 노동력 교환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혹은 개인 대 개인 및 집단 대 집단의 사회적·문화적 접촉에 의해서, 개인은 물론 각 가정과 취락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로, 평탄한 해안지역은 농경지의 조성을 배경으로 농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의식주의 근간이 되는 기본자원들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특히, 농경지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작 가능한 장소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안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농업생산력이 높고 노동력 투입이 보다 용이한 장소가 우선적으로 개간되었다.

네 번째로, 해안지역은 바다를 이용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데도 유리하다. 즉, 半島部나 주변지역과 교역을 하거나 물자수송을 위해서는 연안포구의 이용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연·근해에서의 어로활동이나 갯가에서의 수산물 채취행위는 농산물에서 얻지 못하는 각종 영양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며, 농업활동에 필요한 비료의 재료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 만큼 해안지역은 연안바다로 접근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적은 동시에, 장소에 따라서는 취락을 기본 축으로 하여 동서남북의 방향 중 특정 방향으로 바다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양호한 조건을 배후에 끼고 있는 셈이다.

다섯 번째로, 해안지역은 취락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적 범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물교환이나 노동력 교환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교류의 장이 되며, 외적의 침입이나 외부세력에 대한 집단적 방어와 대응도 쉬워진다. 따라서, 해안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형성이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나 물자의 구입도 편리해진다. 동시에, 그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이동에 필요한 도로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이상과 같이, 해안지역의 특성은 이미 탐라시대의 주민들이 선조로부터 누적돼 온 지식과 생활상의 경험을 통해 숙지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해안지역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이루며, 제주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주무대가 된 것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Ⅲ. 人口構成과 聚落의 形成・擴散過程

#### 1. 인구수의 추정

특정지역에 취락이 형성되려면, 몇 개의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는 적정규모의 인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탐라시대를 통틀어 인구수를 파악하기에는 관련기록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매우 난해하다. 일반적으로 탐라시대가 氏族社會에서 部族社會를 걸치면서 형성·발전해 왔다고 본다면, 초기 탐라시대의 인구는 여러 가지 지리적·사회경제적 조건을 전제했을 때 상당히 적은 수입에 틀림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취락의 규모가 작고 취락의 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

우선, 탐라시대의 인구규모를 추정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주변국인 高句麗, 百濟 및 新羅의 인구 관련기록을 참고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東史補遺》에 의하면, 고구려의 戶數는 太祖王(53~146년) 때 3만 호, 廣開土王(392~413년) 때 21만 508호, 고구려 멸망시기에 이르러 67만 호라 기록하고 있으며, 《新唐書》에 의한 백제의 멸망 당시의 호수는 약 76만 호,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한 신라는 전성기에 慶州의 호수가 17만 8,946호라는 단편적인 기록들이 나타난다. 이 기록들도 기록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 호구수에다 가구 당 가족수를 설정하면, 당시 각국의 개략적인 인구수를 추산해 낼 수는 있다<sup>17)</sup>. 그러나 자료 자체가 불투명한 점이 많아 신빙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진한 기록 속에서도, 가령 신라의 경우는 전성기의 전체인구가 약 100만 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sup>18)</sup>.

한편, 탐라시대의 인구관련 자료로서는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 660년

17) 남영우·서태열, 《도시와 국토[전정판]》(법문사, 1995), 109~110쪽. 이들 호구수에다 가구 당 5~6명을 가정하여 계산했을 때, 고구려의 인구수는 태조왕 때 15만~18만 명, 광개토왕 때 105만 2,540~126만 3,048명, 멸망 당시에는 335만~402만 명이 되고, 백제의 인구는 멸망 당시 380만~456만 명이 된다. 그리고 신라 경주의 인구수는 약 89만 4,730~107만 3,676명이 된다. 그런데, 남영우 교수는 9C경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주의 호구수는 인구수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8) 남영우·서태열, 《위의 책》, 110쪽.

대 중국의 《唐會要》의 기록이 있다<sup>19)</sup>. 이 기록에는 탐라의 戶口가 8,000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 이청규 교수는 호구수가 아닌 인구수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0)</sup>. 이점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다소나마 명료해진다. 과거에는 출산율이 높다고 가정하여, 가구당 5~6명을 예상했을 때 8,000이 실제 가구수라면 인구수는 4만~4만 8,000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청규 교수의 지적과 같이, 18C 이전 조선 시대의 인구가 4만 명을 밀도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sup>21)</sup> 8,000이란 수치는 인구수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필자도 동감한다. 아울러 고려시대 말기(1273년) 탐라의 인구가 1만 223명이었다는 기록<sup>22)</sup>도 7세기경 탐라의 인구가 대략 1만 명 이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서기 원년 탐라의 인구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른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여 약 2만 명으로 추산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전체 인구수인 약 300만 명의 0.6%에 해당된다는 나름대로의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다<sup>23)</sup>.

어떻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탐라시대의 인구를 추정하는 작업은 현재로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제주도의 인구가 한국 전체인구의 1%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도 탐라의 인구규모는 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2. 취락의 분포와 확산과정

탐라시대의 초기에는 취락이 주로 어디에서 입지·형성되고, 후기에는 어느 방향으로 확산되어 갔을까. 본 항에서는 그러한 의문점을 근간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신용하 교수에 의하면, 탐라국은 B.C. 1~A.D. 1C경 북방의 철제무기 등 철기문화를 소유했던 良貊族, 高句麗族 및 夫餘族이 들어온 이후, 그들 3부족이 연맹함으로써

19) 《唐會要》 권100, 耽羅國條 기록된 내용의 일부를 해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탐라는 신라의 武州 해상에 있다. 섬 위에는 산이 있고 주위는 모두 바다로 접하였는데, 북쪽으로 백제와는 (백제 타고) 5일을 갈 만한 거리이다. 그 나라 왕의 성은 儒李이고 이름은 都羅인데, 城隍은 없고 다섯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들의 집은 등글게 돌담을 둘러서 풀로 덮었다. 호구는 8천이 있다. 활과 칼과 방패와 창이 있으나, 文記는 없고 오직 귀신을 섬긴다...” (高昌錫, 《耽羅國史料集》(新亞文化史, 1995), 245쪽.) 20) 李清圭, 《濟州島 考古學 研究》(學研文化社, 1995), 328~329쪽.

21) 조선시대의 인구기록에 대한 몇 사례를 제시하면, ①세종 7년(1424) 18,897명, ②세종 16년(1433) 63,474명, ③현종 11년(1669) 42,700명, ④현종 14년(1672) 29,578명, ⑤정조 13년(1719) 39,762명, ⑥순조 16년(1816) 61,795명, ⑦헌종 2년(1836) 75,120명 등으로 나타난다(송성대, <인구와 취락>(제주도, <제주도지> 1, 제주도, 1993), 459쪽.

22) 《高麗史》 권27, 世家, 원종 15년 2월조,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신서원, 2000), 94쪽에서 재인용.

23) 송성대, <위의 글>, 459쪽.

연맹왕국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아울러 탐라국 건국기의 행정구역은 건국 주체 세력인 3부족을 중심으로 하여, 탐라국 전체로는 5徙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5)</sup>. 여기에서 중요한 논점은 당시의 행정구역이며 거주지역으로 생각되는 5도 체제에 있다. 여기서 신용하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탐라국 초기의 주된 거주지역은 1도·2도·3도를 비롯하여 별도(현재의 화북1동)와 외도(현재의 내도 및 외도)라는 설이 성립된다. 거론할 여지도 없이, 이들 5도 지역은 현재의 제주시 지역 내에 전부 포함되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자면 탐라국 초기의 中心聚落은 5도라 할 수 있으며 5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는 중심취락과 상대되는 周邊聚落이 존재했었음을 想定할 수 있다. 또한 중심취락과 주변취락과는 일정한 사회적·기능적 관계가 성립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신용하 교수는 이형상 목사의 《南宦博物》에 나타난 고랑부의 거주지역이 “第1徙로서 한라산 북쪽의 1徙里(고씨의 거주지역), 第2徙로서 한라산 우익의 남쪽 山房里(양씨의 거주지역), 第3徙로서 한라산 좌익의 남쪽 兎山里(부씨의 거주지역)”라 한 것은 탐라국 후기의 일이라 지적하고 있다<sup>26)</sup>. 여기에서 탐라국 후기의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심취락이 크게 3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주시 1도동, 안덕면 화순리, 표선면 토산리에 자리잡고 있던 중심취락과는 상대적인 주변취락의 존재 가능성도 가정할 수 있다.

송성대 교수는 탐라의 취락형성 및 확산과정을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sup>27)</sup>. 즉, 土器文化를 지니던 선사시대의 주된 생활무대는 동굴을 중심으로 한 해안가에 한정되다가 철기시대에 이르러 농경의 정착에 따른 농경지의 확보를 배경으로 내륙 쪽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 취락의 확산방향은 당시의 유물이 집중 출토되고 있는 한라산 북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 한라산 북서지역은 선사시대의 취락의 起源地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홍석 박사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오늘날의 제주시와 한림사이의 해안지역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수혈식 또는 동굴 주거지의 분포지와 입지상의 공통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은 당시 어로자원과 수렵대상의 동물자원이 풍

24) 慎錫廈, 《耽羅國 建國의 新研究—耽羅史 研究의 새로운 觀點—》(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도사연구회, 《耽羅史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회 제주사정립 학술 심포지엄, 1997), 10~31쪽.

25) 慎錫廈, <위의 글>, 28쪽.

26) 慎錫廈, <위의 글>, 29쪽.

27) 송성대, <위의 글>, 483~484쪽.

부하고 외적방어에 유리하며 용천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의존의 원시 경제적 단계에서는 취락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고 하였다.<sup>28)</sup>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농업생산력이 높아지고 인구증가가 배경이 되어 지상가옥이 등장했으며 동시에 외부와의 交易도 행하게 됨으로써, 취락의 입지와 확산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부와의 교역 혹은 취락입지의 절대적·상대적 위치를 배경으로 하여 현재의 제주시가 渡津聚落으로 성립되는 동시에, 탐라의 여러 해안지역에도 취락이 입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시는 삼국시대인 4C 초반에서 7C 중반에 걸쳐 탐라의 중심취락으로 발전했다고 하였다. 또한, 삼국시대 이후에 취락의 이동과 확산은 한라산을 축으로 하는 수직적인 이동이나 또는 해안방면으로의 원심적인 이동을 되풀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성대 교수의 주장에서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는 제주도 해안지역 내의 취락분포는 7C 중반 경에 이르러 거의 완결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완결된 형태의 취락분포라고는 하나, 聚落規模가 오늘날과 같이 큰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취락 내에서도 가옥의 密集度는 매우 낮지만, 외형적으로는 해안가를 따라 帶狀으로 분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검토한 660년대 중국의 《唐會要》의 기록 중에는 탐라가 “5部落으로 나누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7C 중반 탐라에는 5개의 부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기록에 대해 이청규 교수는 유물의 분포상태로 보아 자연부락의 수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sup>29)</sup>, 신용하 교수는 ‘分作(나누어 만들었다)’이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부락 자체는 인위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탐라국 건국기의 5도 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0)</sup>

이상과 같은 선학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탐라국 시대의 취락의 분포와 확산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탐라시대 초기의 중심취락은 현재의 제주시를 근간으로 하는 1도·2도 및 3도 지구에 입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심취락에는 당시 탐라국을 이끌어 가던 주된 세

28) 吳洪哲, <濟州島의 聚落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4), 1~143쪽.

29) 李清圭, 《위의 책》, 329쪽.

30) 慎鍾廣, <위의 글>, 28쪽.

력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3도 지구에서 가까운 용담동 고분의 유물, 즉 鐵劍(장검과 단검), 鐵斧, 鐵鏃, 그 외 철기류나 유리구슬 그리고 삼양동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瓊玉(중국계 유물), 구슬, 철경부동촉 등이 대표적인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다.

둘째로, 탐라시대 초기에는 3도라는 중심취락 외에도 이전부터 거주하던 先住民들에 의해 한라산 북서지역이나 남서지역의 일부에도 이미 몇몇 취락들이 입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근거로서 한라산 북서지역과 남서지역에서 최근까지 많이 발굴된 유물(토기류, 석기류, 패촉 등)·유적(동굴입구 집자리, 바위그늘 집자리, 지석묘, 패총 등)·유물 산포지의 분포와 관련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들 두 지역에 위치하는 취락들은 주변취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선사시대로부터 누적돼 온 취락의 입지적 조건을 살려 거리적으로 먼 이동 없이, 해안가 주변에서의 지연적 공동체의 생활습관에 의해 취락이 형성·발전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셋째로, 탐라시대 중기(5C 후반에서 7C 후반) 이후에는 상대적인 인구증가에 의해 인구이동이 이루어진 결과, 해안지역의 여러 곳으로 소규모 취락들이 확산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3도로 대표되는 중심취락과 이를 벗어난 해안가의 주변취락 사이에는 行政組織의 개편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탐라국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적·제도적 관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로, 탐라시대 중·후기에 이르면서 외부와의 교역도 한층 강화됨으로써<sup>31)</sup>, 중심취락의 사회적인 위치가 견고해지는 동시에 주변취락의 경우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대략 현재와 같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環狀形態의 취락분포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취락의 확산과정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해안지역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탐라국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郡縣으로 편입되기 전(肅宗 10년(1105))까지의 인구규모는 아무리 높게 계산해도 2만여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많은 가옥을 배경으로 한 취락구성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31) 李清圭, 《위의 제》, 335쪽.

아울러, 탐라가 고려에 편입된 이후에는 고려정부가 중앙집권적 체제의 강화를 위해 忠烈王 21년(1295)에 제주목(大村)을 설치하고, 충렬왕 26년(1300)에는 이미 탐라 시대에 성립된 취락들을 재조직하여 14개의 縣村<sup>32)</sup>을 탄생시킴으로써<sup>33)</sup>, 통치의 기본 단위인 행정적 취락으로서의 성격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이들 14개의 현촌에다 회종 7년(1211)에 만들어진 귀덕현을 합쳐 15개의 현촌이 성립되며, 이들 현촌은 대촌인 제주(제주시)와는 主縣—屬縣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4)</sup>

### 3. 취락의 형태와 성격

취락의 형태는 우선적으로 경제활동의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선사 시대에는 주로 해안가의 어로활동과 산록주변에서의 채취·수렵활동이 주가 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이동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크게 지배되는 수혈식 또는 동굴(바위그늘) 주거지 등 천연적인 주거형태가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할 때, 선사시대에는 일부 가옥들이 지상 가옥화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전술한 자연적·천연적인 주거형태로서, 취락이 일정한 형태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락의 성립이나 형태 등 제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일정장소에서 정주생활의 보편화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전개, 그리고 인구증가에 힘입어 지상 가옥이 보편화된 이후라 할 수 있다.<sup>35)</sup>

탐라시대의 취락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제주시와 한라산 북서 해안지역 그리고 한라산 남서부 해안지역을 선호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가옥의 밀집도에서는 過疎狀態를 보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당시의 人口規模와도 비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인구가 작게는 1만 명 이내 크게는 2만 명 이내라고 전제할 때, 개개의 취락의 호수구성은 10호 미만인 小村의 형태를 띠고

32) 14개의 현촌을 당시의 현촌명과 현재의 취락명으로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열순서는 제주시에서 서쪽 방향을 돌아, 다시 제주시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①귀일(에월읍 귀일리), ②고내(에월읍 고내리), ③에월(에월읍 에월리), ④곽지(에월읍 곽지리), ⑤명월(한림읍 명월리), ⑥차귀(한경면 고산리), ⑦산방(안덕면 화순리), ⑧예례(서귀포시 예례동), ⑨홍로(서귀포시 서홍·동홍동), ⑩호촌(또는 호야, 남원읍 신례·하례리), ⑪토산(표선면 토산리), ⑫김녕(구좌읍 김녕리), ⑬함덕현(조천읍 함덕리), ⑭신촌(조천읍 신촌리)이다(李元鎮, 《耽羅志》(1653), (金相助 譯, 《李元鎮 耽羅志》(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33) 李元鎮, 《위의 책》(1653).

34) 金日宇, 《위의 책》, 90~91쪽.

35) 矢嶋仁吉, 《集落地理學》(古今書院: 東京, 1956), 57쪽.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앞서 거론했듯이, 7C 중반 경 탐라의 인구가 8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가구 당 가족구성을 5~6명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면 당시의 총 家口數는 1,333~1,600호 정도가 된다. 나아가, 이 수치에다 취락의 개념적 단위를 10호로 가정한다면, 당시의 취락은 총 133~160개가 형성돼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추정해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sup>37)</sup>.

그런데 오홍석 박사의 연구결과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는 帳籍에 의거한 신라 부락의 내면적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락의 단위가 평균 12호, 인구수가 115명, 호구별 가족수는 11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오늘날의 행정 구역상의 취락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현상은 당시의 실질적인 생활권이 지역적인 범위가 아주 작은 基礎地域에 의존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8)</sup>.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라와 탐라의 실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유추하는 데는 유의한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sup>39)</sup>. 아울러, 1970년대까지도 제주도에서 행해지던 방애(연자마)의 운영단위가 10~15가구였다는 사실<sup>40)</sup>도 당시의 취락규모를 짐작케 하는 데는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제시한 《唐會要》의 기록 중에서, 특히 “... 그들의 집은 등글게 돌담을 둘러서

36) 吳洪哲, <위의 글>, 77쪽. 오홍석 박사의 논문에서 10동 이하로 잡는 공간적 범위는 1:50,000 지형도를 토대로 한 방안설정에 따른 것이다. 방안의 크기는 가로 500×세로 500m이며, 따라서 면적은 500㎡가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본고의 내용과 같이 탐라국 시대라고 하는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취락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다룰 때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러한 기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당시 취락의 규모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보려는데 있다.

37) 오늘날 제주도의 취락수를 행정구역 편제에 따른 동(洞)·리(里)의 수에서 보면, 31개동 172개(행정동)로 합계 203개이다(제주도, 《제40회 제주통계연보》(제주도, 2000), 42~43쪽). 그런데, 이 수치와 앞서 논의한 탐라의 취락수(133~160개)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다소 우문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당시의 취락규모는 오늘날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작기 때문이며, 당시의 불과 몇 호로 구성된 자연취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동과 리는 많은 자연취락들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취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할 때, 탐라시대의 취락이라 하는 개념은 오늘날의 동과 리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통(通)과 반(班)의 개념에 오히려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참고로, 1999년도 통수는 622개(제주시 및 서귀포시), 반수는 5,217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로서, 이 둘을 합치면 5,839개(제주도, 《위의 책》, 43쪽)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5,839라는 수치도 취락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취락(마을)의 수'로 비정할 수 있다.

38) 吳洪哲, 《聚落地理學(增補版)—農漁村의 地域性格과 再編成—》(敎學研究社, 1989), 112~113쪽.

39) 그러므로 앞서 가정한 계산에서 가구 당 가족수를 더 높이면, 전체 호수나 취락수는 한층 감소할 수 있다.

40) 玄容駿·文武乘, <歲時風俗>(文化體育課, 《濟州의 民俗 I-歲時風俗·通遇儀禮·傳承演戲》, 濟州道, 1993), 17쪽.



풀로 덮었다. … 활과 칼과 방패와 창이 있으나, 文記는 없고 오직 귀신을 섬긴다…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有弓刀楯稍 無文記 唯事鬼神…)"는 내용은 취락 내의 家屋景觀과 취락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집은 둥글게 돌담을 둘러서 풀(草)로 덮었다' 함은 집 주변 즉 마당을 포함한 일정한 택지주위를 돌담으로 두르고 있었고, 지붕의 재료가 '풀'이라는 것이다. 가옥(안커리, 밖커리, 석왕(우사) 등)을 중심으로 한 기타 부속시설(눌굽, 장항굽, 통시 등)의 실태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돌담으로 주위를 둘러쌌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제주도의 전통적인 가옥구조를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붕의 재료가 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띠(茅, 새)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띠로 엮은 제주도의 전통가옥을 '띠집' 또는 '새집'이라 하지 않고, 흔히 '초가(草家)집'이라 일컫는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돌담을 쌓고 풀로 지붕을 덮었다는 배경은 탐라시대로부터 바람이라는 氣候要素를 극복하며 가옥을 축조하고 있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기는 없고 오직 귀신을 섬긴다'라는 구절에서는 탐라주민의 민속신앙과 관련하여 취락 내의 신앙관련 시설이나 대상(당목, 바위, 기타 인위적인 조각물 등)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내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속신앙의 존재는 바로 취락의 형성역사나 주민들의 생활양식(mode of life)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탐라의 堂神仰 중 山神信仰이 한라산을 인격화한 자연신앙으로서 혈연·지연에 바탕을 둔 설촌조상을 섬기는 본향당 신앙이 주류를 이루는 데다가, 현재 전해지는 '산신당본풀이'도 수렵하며 이동하던 소집단 씨족들이 일정지역을 점유하고 취락을 형성해 가는 이행기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지적<sup>41)</sup>을 상기할 때, 당시의 취락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임에는 틀림없다.

#### IV. 耽羅 住民의 經濟活動의 基盤과 背景

오늘날 제주도의 경제활동은 농수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탐라시대에는 농수산업과 목축업,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1차 산업이 주가 되고 있었다. 결국, 이들 세 부문은 탐라주민의 식생활을 비롯한 각종

41) 文武乘, <濟州島 堂神仰 研究>(濟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3), 257쪽.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문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하기로 한다.

## 1. 농업 활동의 기반과 배경

탐라에서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활동이 실제로 행해지는 시기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와 관련되는 유물은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편이다. 먼저 제주시 삼양동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콩·보리 등의 炭化穀物과 솥돌·갈돌과 갈판·石斧, 락지리 패총에서의 패도, 김녕 계내기 동굴에서의 貝鏃·貝刀·솥돌 및 갈돌, 고내리에서 출토된 철제 낫, 콩·보리 등의 탄화곡물, 그리고 종달리 패총에서의 손칼·솥돌과 갈돌, 콩·보리 등의 탄화곡물에 주목할 수 있다<sup>42)</sup>.

이들 유적은 탐라시대의 전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탐라시대 초기부터 해안에서의 어로활동과 함께 농업활동이 시작되고 정착되었음을 의미하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용하 교수의 논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탐라국 개국시기인 B.C. 1C~A.D. 1C에 걸쳐 碧浪國과 한반도 남해안으로부터 대규모의 인구집단과 더불어 농경문화가 유입됐다는 것이다<sup>43)</sup>.

그런데, 김인호 박사는 한반도가 “農耕綴衣文化圈”이었는데 반해, 제주도는 放牧皮衣文化圈이라고 주장하면서, 탐라에서는 목축업이 먼저 발달했고 농업은 7C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sup>44)</sup>. 이와 관련되는 증거를 중국문헌인 《唐書》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만으로 탐라 농업활동의 정착을 7C로 단정짓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열거한 탐라국 초기단계의 고고학적 자료의 의미와 가치는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탐라에서 일찍부터 가축은 사육하면서도 농업은 행해지지 않았다는 상황적인 배경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비록 탐라가 화산활동으로 인해 토양의 肥沃度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몽골과 같이 초원지대만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탐라의 기후환경은 농업활동에 아주 유리한 풍부한 강수량과 연중 고른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취락이 입지한 주변부에서는 농업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고 보는

42) ①제주대학교박물관, 《위의 글》18쪽. ②강창화, 《고내리 유적》(《耽羅, 歷史와 文化》,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70~71쪽. ③국립제주박물관, 《위의 책》, 56쪽, 60~63쪽, 85~93쪽, 95쪽.

43) 慎鎬廣, 《위의 글》, 22쪽.

44) 金仁顯, 《위의 책》, 16~18쪽.

쪽이 타당할 것이다.

농업활동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경지의 확보이다. 그러므로, 탐라국 초기에는 해안지역의 평탄한 장소를 골라 먼저 火田에 의한 밭 개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반도에 비해 철기의 보급이나 농업기술의 전파가 늦어진 관계로 인해, 재배작물의 수나 밭의 개간면적은 상당히 영세했을 것으로 사려된다. 현재까지 출토된 탄화곡물은 주로 보리와 콩에 한정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조나 피 등의 食糧作物도 재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탐라국 초기에는 농업과 어업 및 수렵 등을 동시에 행하는, 말하자면 兼業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이 일반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오홍석 박사의 지적과 같이, 원시적 농경방법이나 척박한 토양조건 하에서는 식량의 自給自足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45)</sup>. 시기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일정시점에 이르러서는 점차 농업활동이 다양해지고 가축사육을 통한 목축업이 겸해지면서 생계수단으로서의 수렵은 종식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농경지의 조성과 확보는 최초 해안지역의 취락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는 곳이나 비교적 평탄한 장소에서 시작하여, 점차 취락의 외곽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 배경은 농경지는 거리적으로 볼 때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만,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노동력 투하량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안취락이 입지한 위치에서 동서방향으로 또는 내륙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가는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제주 출신 지리학자인 김상호 박사는 한국의 基底農耕文化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탐라가 일차적으로는 이동에 의한 주거정착과 함께 경지개간을 행하는 화전경영단계가 있었으며, 이차적으로는 정주지 주변에서 輪耕火田을 확대하는 형태의 화전경영단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46)</sup>. 결국,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탐라시대에 이르러 주민들의 정주생활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화전형태의 농경지 개간과 농경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농경지 조성은 특정취락을 기점으로 할 때 ①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② 평탄지에서 구릉지 쪽으로, ③ 해안쪽에서 내륙쪽이라는 기본원칙이 적용됨과 동시에, 火田經營을 통한 농업경영방식이 모체가 되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45) 吳洪哲, <위의 글>, 28쪽.

46) 金相昊, <韓國農耕文化의 生態學的 研究—基底農耕文化의 考察—>(社會科學論文集) IV, 서울대, 1970), 97쪽.

있다.

한편, 재배작물 중 특히 식량작물의 수나 종류는 탐라의 농경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삼성신화에 오곡의 씨앗이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탐라의 농업 활동이 일찍부터 행해졌을 것이라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의 오곡이 오늘날의 오곡(벼, 보리, 조, 콩, 기장)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일본의 지리학자인 마츠야마(松山)는 《日本書記》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제주도의 전작농경문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탐라가 백제의 멸망 이후 일본과의 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668~671년(日本, 天智天皇)에 걸쳐 두 번(673년, 675년)이나 사자를 보내 왔는데, 이때 일본의 텐지(天智) 천황은 탐라의 사자에게 5곡의 종자를 하사했다. …이 5곡의 종자가 조, 피, 보리, 대두(大豆), 콩(豆)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벼, 조, 보리, 팥, 대두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벼를 제외한 조, 피, 보리, 대두, 팥이라는 5종 작물이 일본에서는 화전경영상 중요한 작물이며, 이것들이 탐라로 보내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sup>47)</sup>.

이상과 같은 《日本書紀》의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C 중반 경에 이르러서는 탐라의 식량작물의 수도 그 이전단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탐라의 국가체제가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농업경제에도 일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츠야마가 지적한 5종 작물은 오늘날까지도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데는 그에 필요한 농기구가 있어야만 한다. 탐라시대 초기의 농기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石刀나 貝刀 이외에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석도나 패도는 탐라시대 이전단계에서부터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주로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런데 탐라는 반도부에 비해 철의 보급이 늦어진 관계로 인해, 철제 농기구는 7C 중반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한다. 밭의 개간이나 밭갈이 등과 관련되는 호미, 쟁이, 따비와 같은 농기구는 문헌기록이나 유물이 극히 드문 편이지만, 《新唐書》東夷傳 流鬼 儋羅條에는 탐라의 농경방식과 더불어 농기구로 보이는 도구가 등장한다. 기록의 내용을 보면, “용삭 초년(661) 탐라라

47) 松山利夫,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東京: 古今書院, 1986), 308~309쪽. 이 책에서 바로 “제주도의 전작농경문화”(308~325쪽)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필자가 번역하여, 《濟州島史研究》第7輯에 소개하였다(정광중 譯, 《濟州島의 田作農耕文化》(濟州島史研究會, 《濟州島史研究》7, 1998), 105~120쪽).

는 나라가 있었는데, ... 땅에서는 오곡이 나지만, 땅을 가는 데는 소를 부릴 줄 모른다. 쇠로 鐵齒杷를 만들어 땅을 판다..."<sup>48)</sup>라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철치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농기구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 쇠스랑으로 보는 견해<sup>49)</sup>와 따비나 쟁이로 보는 견해<sup>50)</sup>가 있다.

두 학자의 견해는 다르나, 땅을 일구어 밭을 개간하는 용도로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가지 의문점은 이 농기구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하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기록에 나타나는 시점과 사용된 시점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지만, 사용시기는 기록된 시점에서부터 한 층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70~80년대까지도 제주도에서 사용하던 쟁기와 소를 이용한 牛耕方法은 한반도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7C 중반 이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며, 우경이 보다 활발하게 행해지는 시기는 더욱 늦은 10C경 이후로 보는 견해가 높다는 것이다.<sup>51)</sup>

## 2. 목축업 활동의 기반과 배경

농업과 함께 탐라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을 목축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보자. 《後漢書》東夷傳 韓條에는 "마한의 서쪽 바다의 섬 위에 州胡國이 있다. 그 나라 사람은 키가 작고 머리를 깎으며, 가죽옷을 입는데, ... (이 지역 사람 사람들은)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며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韓의 國中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sup>52)</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도 거의 비슷하게 등장한다.

이상과 같이, 3C 경부터 '주호국이 소나 돼지를 기른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듯이 주호국이 실제로 탐라국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참고로 삼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축의 사육화는 농업의 시작과 더불어 일찍부터 행해졌음이 분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53)</sup>

48) 高昌鎬, 《위의 책》, 243~244쪽.

49) 高昌鎬, 《위의 책》, 244쪽.

50) 高光敏, 《제주도 쟁기의 형태와 발갈이 방법》(《韓國의 農耕文化(第2輯)》, 京畿大出版局, 1987), 95~132쪽.

51) 金日宇, 《위의 책》, 110~111쪽.

52) 高昌鎬, 《위의 책》, 237쪽.

53) 山本正三·田林 明·櫻井明久 共譯, 《栽培作物と家畜の起源》(東京: 大明堂, 1985), 23~47쪽.

삼성신화에 오곡의 씨앗과 함께 망아지와 송아지가 등장하는 것처럼, 탐라에서도 초기부터 목축업이 행해졌을 것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점은 탐라시대 초기까지도 이용되었던 동굴 집자리 유적에서 소·말·돼지 등의 동물 뼈가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탐라국 형성기부터 목축이 행해졌다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가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sup>54)</sup>.

7C 경에 이르면, 《新唐書》에 “...담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풍속은 질박하고 비루해서 옷은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는다...”<sup>55)</sup>라는 내용이 등장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개와 돼지의 사육화가 행해졌음이 시사되고 있다.

탐라의 목축업에서 중요시되었던 가축은 문헌기록이나 출토유물에 의거할 때, 소와 말, 개와 돼지로 압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연하겠지만, 소나 말이 野外放牧을 겸한 사육형태였다면, 개와 돼지는 주로 택지 안에서의 사육이었을 것이다. 택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육시기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인간에 의한 사육화가 빠르다고 하는 닭의 사육도 행해졌을 것이다<sup>56)</sup>. 즉, 오늘날 제주도에서 닭이 많이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로부터의 유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탐라의 환경적 조건으로 보아 소나 말은 농경에 적극적으로 이용했음은 물론, 각종 농수산물과 더불어 탐라주민들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한 식용으로도 소비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가축은 상품적 가치도 높았던 동시에 가축수의 다소관계는 富의 상징으로도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가축은 탐라주민의 가정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의 매매나 부족한 물품을 구입·교환하는 상황하에서는 중요한 결제수단으로도 이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 3. 수산업 활동의 기반과 배경

탐라시대에 연안바다를 배경으로 전개됐던 수산업은 어떠했을까.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연안의 갯바위나 얇은 바다 속에서 조개류, 해초류 및 어류를 주로 손으로 채취

54) 이와 관련되는 문헌으로는 ①林元室, 《耽羅國의 形成·發展過程 研究》(西江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1~57쪽. ②慎鍾廣, 《위의 글》, 30쪽. ③金仁顯, 《위의 책》, 13~17쪽. ④金日宇, 《위의 책》, 149~162쪽 등을 들 수 있다.

55) 高昌鎬, 《위의 책》, 243~244쪽.

56) 山本正三·田林 明·櫻井明久 共譯, 《위의 책》, 136~137쪽.

하거나 간단한 형태의 그물로 잡는 단계였다고 예상된다. 탐라시대 초기부터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았던 흔적은 삼양동 마을의 紡錘車나 漁網錘의 출토로 분명해졌다. 그러나, 초기에는 고기를 잡았던 해상범위가 어로기술이나 배의 건조기술의 발달하지 못했던 관계로 인해, 육지에서도 아주 가까운 연안바다에 한정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시기에 이르러서는 배를 이용한 어로형태가 행해졌을 것이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고기잡이용 배가 제작되어 사용한 시점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지역특성상 외부와의 교류가 항상 이루어져야 했던 만큼, 6C 이후에는 소형어선이 제작되어 어로활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 이점은 탐라가 6C 이후에 이르면서 한반도나 중국, 일본 등과 보다 활발한 교역활동을 전개하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풍부한 목재생산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다<sup>57)</sup>. 여기서 고기잡이용 배는 송성대 교수가 “가장 제주다운 어선”이라 강조하는 덕판배<sup>58)</sup>의 초기 형태나 1970년대까지도 자리돔 잡이용으로 사용되던 테우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수산업 활동을 통해서 주로 거두어들인 수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자. 한반도나 외국과의 교역품 중에는 珂(자개), 전복, 어포 등이 있었다. 그리고 高麗時代나 朝鮮時代의 기록 등에 보면 전복, 소라, 조개, 오징어, 멸치, 옥도미, 갈치, 고등어, 거북 등과 같은 어패류가 있었으며 미역, 우뭇가사리, 툇, 파래, 김, 모자반 등과 같은 해조류도 나타난다<sup>59)</sup>. 따라서, 탐라시대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면 수산물의 종류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후기에 이룰수록 오늘날 연안에서 잡히는 어패류와 해초류는 대부분 포획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어패류는 탐라 주민들의 食用과 進上用 그리고 外部 交易用으로 주로 이용되었고, 해초류는 식용이나 堆肥用(밭거름용) 혹은 가축의 飼料用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sup>60)</sup>.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탐라에서는 많은 海女(潛嫂)들이 잠수어업을 통해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활기반을 다지고 있었다는 점이다<sup>61)</sup>. 탐라해녀의 출현에 대해서

57) 李齊圭, 《위의 책》, 317~328쪽.

58)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해민정신/개정 증보판—》(파피루스, 1998), 302~303쪽.

59) 金日宇, 《위의 책》, 120~121쪽.

60) 金日宇, 《위의 책》, 120~121쪽.

61) 여성보다도 남성이 먼저 잠수일(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송성대, 《위의 책》, 287~291쪽), 여기서 이 문제에 상세한 논의는 전체적인 논지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삼가기로 한다.

는 4C부터라는 주장<sup>62)</sup>과 15C 이후라는 주장<sup>63)</sup>으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기도 하나, 문헌기록에는 《魏志倭人傳》의 水人(B.C. 268년), 《萬葉集》의 海人, 海女, 潛女, 海子, 海處女(759년), 《倭姬命世紀》의 潛女(768년), 《倭名類聚抄》의 潛女(785년) 등 많은 용어가 등장한다<sup>64)</sup>. 물론, 이들 문헌은 한국측 혹은 탐라측 문헌이 아니라는 점에서 완벽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리적 특성상 탐라에서는 적어도 7C를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오늘날의 해녀와 같은 일을 하는 標潛漁業 관련 종사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제주해녀들의 위상은 사회·경제적인 관념의 변화에 의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처지이지만, 가정경제를 떠받치는 생활전사로서의 존재적 가치는 탐라시대의 해녀들도 마찬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탐라시대의 지리적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기반에 대해, ① 집단 거주지의 형성과 지리적 조건(제Ⅱ장), ② 인구구성과 취락의 형성·확산과정(제Ⅲ장), ③ 경제활동의 기반과 배경(제Ⅳ장)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요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탐라시대의 거주지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선사시대로부터의 동굴입구 및 바위그늘 주거형태에서 수혈식 및 고상식 주거형태를 걸쳐 완전한 지상가옥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는 주거지의 내부구조가 단순한 구조에서 다양한 구조로 분화하는 동시에, 실내의 공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주거형태의 변화가 농업경제의 진전과 인구증가에 의해 유도되었다면, 내부구조의 변화에는 각종 생활도구의 개발, 건축기술의 발전, 사유재산과 신분계층의 발달, 개인적 생활공간의 확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탐라시대의 인구수는 11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서도 작게 보면 1만 명 이내, 크게 보면 2만 명 이내로 추산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조선시대 초의 자료 등을

62) 康大元, 《海女研究》(韓進文化社, 1970), 26쪽.

63) 송성대, 《위의 책》, 288~290쪽.

64) 김영돈, 《한국의 해녀》(민속원, 1999), 40~42쪽.



바탕으로 비교·검토해 볼 때 그 신빙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필자는 탐라시대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인구수를 추산하는데 있어, 약 2만 명 이내라는 선은 안전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탐라시대의 취락은 그 성격상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형태로 대비할 수 있다. 탐라시대 초기부터 중심취락은 현재 제주시의 1도동, 2도동, 3도동 지구를 축으로 하는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취락은 주로 한라산 북서지역과 남서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중기 이후에는 상대적인 인구증가와 농업활동의 전개 등으로 여러 지역으로 취락이 확산·형성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해안지역 중심의 環狀形態의 취락분포가 나타났다. 다만, 탐라시대에는 인구수를 비정하여 추정한다면, 취락의 규모는 아주 작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독 취락 내의 가옥수는 대략 10호를 전후한 小村의 형태로 입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탐라시대의 경제활동은 농업, 수산업 및 목축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먼저, 농업에서는 식량작물의 생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는데, 많은 농경지는 식량작물의 생산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경지의 조성방법은 주로 火田農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성과정은 취락을 중심으로 하여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평탄지에서 구릉지 쪽으로, 그리고 해안 쪽에서 내륙 쪽으로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다.

목축업에서는 주로 소, 말, 개, 돼지 등이 방목과 사육의 대상이었으며, 이들 가축은 탐라주민들의 가정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적 요소였다. 가축수의 다소관계는 부의 상징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종 물품의 구매나 교환과정에서는 중요한 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산업에서는 초기에는 주로 가까운 연안 바다를 이용하여 조개류, 어류, 해초류 등을 손으로 채취하거나 또는 간단한 그물을 이용하여 잡고 있었다. 해녀들에 의한 나잠어업도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채취한 수산물은 가정경제를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6C 이후에는 어선을 건조하여 수산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탐라시대 후기에 이르면, 오늘날의 식탁에 오르는 대부분의 조개류, 어류 및 해초류는 포획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